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자고 일어나니, 간밤에 폭설이 내렸는지 천지간이 하얗다. 키가 큰 전나무 가지마다 쌓인 눈이 소담하다. 전나무 너머 너른 회색빛 하늘 아래 먼 산도 순백이다. 고요가 커져서 쌓인 날에는 탄데이불에 걸쳐 듣는 음반을 찾아 올리자.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자. 음악이 주는 환희와 위안에 기대어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자. 음악의 무아지경 속에서 마음의 격랑은 잦아들고 가슴은 기쁨으로 빳차오른다.

폭설이 내린 날에도 생령 가진 것들은 몸을 움직여 먹이를 찾느라 바쁘다. 먹고 사는 일은 사람이나 담비와 족제비들, 말과 황소들, 뭇 조류에게도 생명의 송고한 업이다. 산수유나무 가지에 달린 빨간 열매를 쪼르곤졸박이 몇 마리가 날아든다. 곤졸박이가 산수유 열매를 쪼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종일 기다리던 어린 날의 저녁들, 붉은 피에 잠긴 황혼이 사라지고 어둠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오신

늦게 찾아온 그리움

어머니가 부엌에서 서둘러 쌀다마 보리가 많은 밥을 안치던 설날그림을 떠올린다. 마당엔 차가운 어둠이 차오르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린 하늘엔 별 한 점도 안 보였다. 저녁밥을 기다리다 지친 소년은 깜빡 잠이 들면 어머니는 기어코 흔들어 깨운다. 소년은 잠이 덜 깨어 비몽사몽 중이다. 그런 소년이 한밤중 밥상 앞에서 목구멍으로 넘기던 밥은 꺼끌꺼끌했다.

가난은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 시절의 남루와 모욕을 견디고 살 만큼 용기를 준 것은 어머니다. 오, 열이 펄펄 끓던 소년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던 어머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세요! 계절은 바뀌고 거리는 거룻배처럼 흘러가고, 당신 가슴 속 숨은 비탄과 환희는 감히 짐작조차 못하던 소년은 늙어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자식을 위해 늦은 저녁밥을 짓고, 구호물자로 받아온 우유를 대우던 어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날마다 뜨는 태양이다. 그 태양이 사라진 세상은 텅 비고 어둠은 고집 센 바위처럼 어린 마음을 짓누른다.

나는 행복했는가? 눈 덮인 겨울 마가목 열매는 붉고, 태양에게 속한 행성은 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아주 불행하지는 않았다. 내 안에서 죽음과 무가 자라난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을 때 우리 안의 짐승들은 살이 찌서 뚱뚱해진다. 그런 불행쯤은 견딜 만했다. 봄엔 모란과 작약 꽃이 피고 여름밤엔 반딧불이가 광무니에 푸른 인광을 단 채 군무

를 추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몫의 감사도 심지 않고, 대리석으로 마음을 건설하는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 낡고 해진 옷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던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오후에도 폭설이 덮인 세상은 여전히 고요하다. 돌이켜보면 좀 먹은 웃김같이 험뻐한 내 영혼을 위로해 준 건 어머니, 바다, 음악들이다. 어머니는 안 계시고, 바다는 저 멀리 있다. 그런 오후엔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출출한 배를 채우고, 행복에 겨워 가르릉거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음악을 듣자. 오, 살아 있는 동안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라면 편지 몇 줄이라도 쓰자. 그 편지를 부칠 때가 마땅치 않더라도 괜찮다. 어머니가 계산 천국의 주소를 아는 자식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우리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신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들짐승처럼 세상을 헤매던 자식을 안아줄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탄식을 하고 말겠지. 적막이 늙은 개처럼 짙는 밤에 우리는 흙이라도 한 줌 삼키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새처럼 종알거려던 소년은 늙었어. 이게 믿어지시나요? 어머니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디에 계시든 저 자식들의 때늦은 탄식과 그리움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에게 부디 시련과 고난을 견딜 용기를 주시고, 죽음의 휘둘림에 의연하게 맞설 담대함을 갖게 해 주세요.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종교칼럼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는 산타



최현열 광주 순교회 담임목사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성탄절 분위기가 나고 거리나 상점에서 성탄 캐롤이 크게 울려 퍼졌었는데, 요즘은 그런 들뜬 모습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 같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들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간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부서마다 연습하는 몸짓이나 얼굴들이 참으로 즐거워 보인다. 주요 거리에는 아름답게 성탄 트리나 장식되어 밤을 밝히고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기복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마치 대목장사라도 하려는 듯이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가유삼성(家有三寶)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세가지 소리를 말한다. 옛날에는 좋은 집안의 조건으로 아이의 울음소리 해성과 배 짜는 소리 기성, 책 읽는 소리 독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정에서 여인이 베 짜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역할이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을 현대 시대에 적용해 보면 맞벌이 부부라 하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니 베 짜는 소리는 여전히 현대에도 들리는 것이라 해석해 본다.

책 읽는 소리는 말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교육열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그런데 저출산으로 아기 울음소리 만큼은 사라진 지 오래라 하겠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온 인류에 기쁨이 되었듯이 우리나라 가정에도 미래에 미칠 기쁨의 소식인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져야 한다.

캐럴 중에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요'라는 가사의 노래가 있다. 나는 이 노래의 가사를 항상 바꿔 부른다. '울면 돼'라고 말이다. 지금 시대에 우는 아이, 울지 않는 아이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그리고 우는 아이가 뭐 그리 잘못 되었다고... 재발 우는 아이들이라도 많아서 성탄절에 아이들 선물 비용이 제일 많이 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선물은 산타가 아니라 무엇을 갖

고 싶어 하는지 몰았던 부모가 주는 것 아닌가 말이다.

울어도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도 구별이나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구별하고, 짜증내거나 장난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그가 구별해서 선물을 준다는 것인데, 어른들은 그런 구별을 너무 심하게 하고 편을 가르는 것 아닌가 싶다. 평소엔 천하지 않아도 성탄절 만큼은 인사로 하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좀 하자.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말이다.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텐데 노인으로부터 갓난 아이까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날이 크리스마스라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선물로는 가장 큰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늙은 할아버지 시므온과 안나라는 과부 할머니 선지자였다. 싸움을 멈추게 하고 전쟁을 쉬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힘이 아닌가. 권력 다툼을 하던 정치인들에게도,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경쟁의 굴레 속에서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도, 남녀노소, 사회 각계각층, 어떤 인종이나 나라든지 모두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성탄은 기쁨의 소식이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와 기쁨을 이룬 성탄절에는 간절히 바란다.

社說

'전국 최다' 빈집 정비·활용 대책 시급하다

전국 빈집의 3분의 1이 광주·전남 지역에 몰려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 상당수가 개발 기대감과 복잡한 소유관계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비·활용 계획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빈집은 1만 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 1003호(55.8%), 활용 가능 대상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 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전남 빈집은 1만 9727호로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은 1만 1003호(55.8%), 활용 가능 대상은 8724호(44.2%)였다. 광주에도 철거 대상 753호, 활용 가능 882호 등 전남 빈집의 경우 빈집의 63%가 철거 대상으로 불량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전체의 5분의 4가 넘는 소유자들이 사실상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의 빈집 가운데 지자체의 철거

잇단 폭설 선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줄여야

광주·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주말 내린 눈이 아직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각종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시간당 5cm 내외의 매우 강한 눈이 오겠다"고 어제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10~25cm 수준이다. 광주와 전남 서부의 경우 많게는 30cm까지도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여수와 광양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출근 시간 쏟아진 눈발로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고, 도심 주요 도로에서는 차들이 막히면서 직장인들의 지각도 속출했다. 빙판길에 차량 미끄러짐 사고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광주공항공과 여수공항의 항공편이 결항하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등 일부 하늘길과 바다길도 막혔다. 사흘 만에 다시 예보된 폭설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적설량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폭설이 내릴 경우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한 구조물이나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등에 눈이 쌓이면 빙판길에 예상되는 빙판-눈전 시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無等鼓

모든 인간에게 명백하게 평등한 것이 있으니 첫째가 노화이고, 그로 인해 누구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것은 팩트이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은 노화 현상이다. 머리카락 색은 모낭 속 멜라닌 세포가 결정한다. 세포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색소의 양이 많을수록 머리 색깔이 짙어진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이유는 노화로 멜라닌 세포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많지 않아도 인체의 특정 분야에 깊은 병이 생기면 노화와 같은 결과를 미처 현머리가 낳 수 있다.

백발 현상

이외에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극단적 경험이나 충격,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갑자기 단기간 내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백발 현상도 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단두대에 처형되기 전날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게 변했다는 데서 유래한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같은 백발 현상을 소재로 한 작품도 많은데, 홍콩 영화 '백발 마녀'에서는 주인공 임정하가 연인(장국영)의 의심을 받

게 되면서 엄청난 분노와 슬픔에 빠지자, 검은 머리카락이 찰나에 백발로 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체의 면역 세포는 스트레스나 극심한 고통 등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 내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페론이 모발을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것이다. 다만 피부과 전문들은 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머리카락 전체가 갑자기 하얗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변색은 모낭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가 흰색이 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프 더 칠드런'이 여덟살 나이에 10개월 간의 전쟁 공포에 시달리다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게 변했다는 데서 유래한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같은 백발 현상을 소재로 한 작품도 많은데, 홍콩 영화 '백발 마녀'에서는 주인공 임정하가 연인(장국영)의 의심을 받

Table with 4 columns: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